작년 건설 실적 광주 2.8% 줄고 전남 6.1% 늘어

1건도 수주 못한 업체 51곳 달해
지역주택업체 타지역 진출 성과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소폭 증가요인은 지역주택업체들의 타 지역 진출 기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광주·전남지역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신고를 집계한 결과,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총액은 2조2839억 원으로 전년(2조3491억 원)보다 2.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토목부문이 4141억원으로 전년(4714억원)보다 12.1% 감소했고, 건축은 1조7270억 원으로 전년(1조6587억원)과 비교해 4.1% 증가했다. 산업환경설비분야는 60억원, 조경은 136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45억 원(-90.0%)과 217억 원(-13.7%)이 줄었다.

전체 회원사 123개사 가운데 500억 원 이상 수주한 업체는 8개사(6.5%), 100억 원 이상 500억 원미만은 25개사(20.3%), 50억 원이상 100억 원 미만은 15개사(12.2%), 10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은 50개사(40.7%)였으며 1년 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6개사(4.8%)로 조사됐다.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185억 원으로 전년도 213억원에 비해 13.1% 감소했다.

전남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607개사의 공사 기성실적은 6조9644억원으로 2011년 6조5652억 원보다 6.1%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토목분야가 2조9657억 원으로 전년 2조8957억 원보다 2.4% 증가했으며 건축은 3조4328억원으로 전년(3조2254억원)보다 6.4% 늘었다. 산업환경설비분야 2806억원, 조경은 285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4.6%와 1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회원업체 평균수주액은 114억7000만원으로, 2011년 106억7000만원보다 8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수주실적이 없거나 실적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사는 45개사(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이 진행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업체 실적이 개선됐다"며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중흥건설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전국적 아파트 건설물량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글로벌 워크캠프' 참가자 모집
40명 해외파견 문화교류·봉사활동

기아자동차가 유네스코(UNESCO)한국위원회와 함께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 참가 대학(원)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8기째를 맞이하는 이번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내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4월 15일까지 기아차 공식 블로그 '펀키아'(fun.kia.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기아차는 참가신청인원 중 서류전형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오는 4월 말 해외 캠프 파견 인원 40명과 한국 캠프 리더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해외 캠프 파견 인원 40명은 오는 7~8월까지 참가 지역에 따라 2~4주 동안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월 車 생산·내수 두자릿수 하락

2월에 자동차 산업의 주요 실적 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의 집계로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3만8278대로 작년 2월보다 19.8% 감소했다고 지식경제부가 11일 전했다.

업체별 생산량은 현대 14만4050대(-18.6%), 기아 11만2411대(-26.0%), 한국지엠 6만923대(-6.6%), 르노삼성 1만384대(-42.2%), 쌍용 9582대(4.5%), 기타 928대(25.2%)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와 일부 업체의 라인 정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

2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1만90대로 작년 2월보다 10.3% 줄었다.

국산차는 9만9534대로 12.4% 줄었지만, 수입차는 1만556대로 14.8% 늘었다.

수출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2월에 23만4161대를 수출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1.9%나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9.5%, 30.2%씩 줄었다.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도 각각 9.2%, 32.8%, 12.9% 수출이 감소했다.

지경부는 설 연휴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하고 유럽연합(EU) 시장의 수요가 위축한 탓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北 리스크에 코스피 하락 코스피가 2,000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6포인트(0.13%) 하락한 2,003.35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국·중국발 호재에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와 엔화 약세라는 악재를 누르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4.50원 오른 1,094.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원고·엔저로 수출中企 해외 거래선 위협

원화 강세와 엔저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트라의 21개 해외무역관이 주요 해외 바이어를 접촉한 결과 상당수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10% 이상의 가격 인상 의사를 전달받았다. 작년 연말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8% 이상 절상된 점을 고려하면 환율 변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정보기술(IT) 등은 영향이 덜하지만 소비재·부품소재·섬유 등은 원화 강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업종에는 중소기업이 많아 환율 변동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일부 바이어는 제품값이 5% 이상 인상되면 구매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섬유업종의 한 미국 바이어는 "최근 한국 업체에서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요구받았다"며 "5%까지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거래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한 식품 바이어도 엔화 약세로 일본산 수입 간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한국산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올 경제활동참가율 '뚝'
24년만에 50%대 추락

올해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로 유지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50%대로 하락할 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된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청년층 취업 지연·불안정한 여성 경제활동 등을 꼽았다.

11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는 59.3%으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즉, 90년대 줄곧 60%대를 지속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80년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활동인구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일 전망이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2482만명으로 작년보다 58만4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를 멈췄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연합뉴스

효성, 930억 모잠비크 전력사업 수주

태양광발전소 구축·변전소 신설 등…아프리카 시장 공략 본격화

효성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태양광에너지 시장에 진출한다.

효성은 11일 아프리카 동남부 모잠비크 공화국의 1.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구축과 송배전망 건설 및 변전소 증·신설 사업 등 총 930여억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는 전략보급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고립지역이 많은 곳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상·하수도 시설과 병원, 학교 등의 건설여건이 나아지게 돼 경제활성화와 빈곤층 인구 감소 등 모잠비크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효성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완공 뒤에도 1년간 발전소 공동운영·유지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도 책임지기로 했다.

모잠비크 외에도 효성은 2014년 말까지 마바고와 무엠베, 메쿨라 등 북부지역 3곳에 각 400~500㎾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개별 발전소로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다.

효성 관계자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변압기·차단기 등의 제품과 함께 턴키 공사의 기술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상의 中企 'FTA 활용 매뉴얼' 발간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11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FTA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FTA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및 FTA대상국 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매뉴얼은 광주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최신 FTA활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말에 발간된 매뉴얼의 개정판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상의는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와 관련된 각종 교육, 설명회, 컨설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최신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문의(062-350-5865)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03.35 (-2.66)	540.44 (-2.66)	2.66% (0.00)	1094.80원 (+4.50)